

제5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0. 7. 8. (수) 09:30 ~ 12:20
장 소	전주시청 4층, 회의실
참 석 자	위원장 등 9명 (재적인원 11명 중 9명 참석)
주요내용	○ 홈페이지 공개를 위한 회의록(제1차~제3차) 확정 ○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 구성에 관한 사항 ○ 차기 회의 일정
회의결과	○ 시나리오워크숍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 ○ 홈페이지 공개를 위한 회의록(제1차~제3차) 확정 ○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 구성(구체적 분야 등) - 정책·도시관리 그룹 : 행정, 의회 등 - 도시계획 그룹 : 도시개발, 교통, 환경 전문가 등 - 지역경제 그룹 : 소상공인, 상공회의소, 상공계 등 - 시민 그룹 : 주민(인근·주변), 시민단체, 주민자치협의회 등 ○ 차기 회의 일정 - 2020. 7. 16.(목) 15:00

제5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 개 회

발 언 자	발언 내용
간사	-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금일 시민공론화위원회 재적인원 총 11명 중 9명 참석하셨습니다. - 참석하지 못하신 ○○○ 위원님과 ○○○ 위원님은 별도로 의견을 받아서 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안건은 첫 번째 홈페이지에 올릴 회의록에 대해 확정을 짓는 문제와 두 번째는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 그룹별 위원수, 위원 선정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제5차 시민공론화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 회의록(홈페이지 게시) 내용 확정

발 언 자	발언 내용
위원장	- 첫 번째 안건은 간사님이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에 올릴 1차, 2차, 3차 회의록에 대해 검토를 하고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차 회의록에 대해서는 자광의 제안내용에 대한 질의응답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만 올릴 것인지 아니면 응답한 내용도 올릴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위원	- 시에서 요약할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전주시 관계자	- 안건 결정사항이 아닌 설명 내용이기 때문에 요약 정리할 예정입니다.
○○○ 위원	- 답변내용을 요약정리해서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반대 단체가 와서 의견을 낼 경우에도 그 의견을 요약정리해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원	- 잘못하면 자광을 대변해주는 회의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이런 논의를 하는 건데요 - 저는 자광의 제안설명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위원회의 질의답변은 간략하게 요약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 그러면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다 포함하나, 요약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회의록에 담고, 자광의 제안설명 자료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 구성 관련

발 언 자	발언 내용
위원장	- 그러면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 구성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그룹별로 정책분야에 어떤 분들을 모실지 7~9명 정도로 해서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일단은 각 분야별로 가능한 사람들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좁혀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논의하기 전에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는데 시나리오워크숍은 우리 위원회가 숙의 그룹을 선정하는 것이고 공론조사는 임의 추출 방식으로 대표성 확보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는 겁니다. - 이 시나리오워크숍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크숍 참여자에 대한 성별하고 세대, 연령대는 적어도 안배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위원장	-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 위원들이 분야별로 구성원을 정할 때 구두로 정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인지
○○○ 위원	- ○○○ 위원님 물론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을 생각하면 예를 들면 인력 풀이 많아질수록 100% 참여가 어려워지거든요. - 그 다음으로 실제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있어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집중성도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팀당 인원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은지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	- 대표성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적을수록 좋긴 합니다.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6~8인으로 보통 얘기가 되고 있고요 - 그런데 오늘 참석인원이 100% 결정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게 어느 정도 큰틀에서는 얘기가 되겠지만 다음에 의제 관련해서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논의할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따라서 참석인원이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7명, 8명 이렇게까지 결정이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 위원	- 방법상의 문제인데요, 일단 인원을 6~7명으로 촘촘하게 가는데 낮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면 10명이면 3명 정도, 6명이면 2명 정도는 시민공모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전문가가 실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모를 통해서 그 사람의 경력을 보더라도 입안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대표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만 선정을 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가로막는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최소 20~30% 정도는 그 분야를 정확히 명시해서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니까 ○○○ 위원님은 위원회에서 반 정도는 저희들이 결정하더라도 반수 정도는 시민공모를 통해서 모집하도록 하자, 자격요건은 분명하게 하더라도 이런 말씀이시고요. 또 좋은 의견 주시죠.
○○○ 위원	- 저는 일반시민 그룹이 따로 있어서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전문가 그룹은 전문가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워크숍은 대표성보다는 효율성과 일을 제대로 하는 능력이 되어 된다고 보고요. 대표성이라는 것은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 전체를 반영하는 거니까 누가 이 문제를 보다 더 잘 풀 수 있는지 그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	- 시나리오워크숍에서 구성원들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정책’은 공무원들은 공적 업무에 대한 전문가들이고요. 밑에 ‘도시계획’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고 ‘업계’는 쉽게 말하면, 장사하는데 전문가 들이고 일반 시민들은 앞에 3가지 분야 말고 전주라는 지역에 대해서 역사, 문화, 경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시민을 넣는 이유는 특정 전문영역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 정체성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고 또 지역의 앞으로 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이 가장 많은 사람들, 물론 전문성은 떨어지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일반시민들을 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선정은 3가지 방식을 섞어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제안에 의해서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법, 추천을 받는 방법, 그리고 공모를 하는 방법, 물론 제안을 하는 방법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그럴만 하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쓰면 공모와 추천은 비중의 문제고 충분히 참여단 풀(pool)이 나오면 어떤 분야는 제안을 할 것이고, 어떤 분야는 공모를 하고 어떤 분야는 추천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논의하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 바로 논의를 하자면, ‘정책’ 부분에서 제 의견은 정책 부분도 너무 도시계획 쪽에 집중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 부분에 도시계획 분야나 그분들을 포함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거기에 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직 부단체장 출신이라든지 기획실장이라든지 전주시 전반에 대한 관련 업무를 하신 분들도 충분히 정책분야에 들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의 범위는 선출직과 임명직 공무원이 고르게 참여하는 게 좋다는 측면이고, 선출직은 전주시 내부로 할 것인지 전북도까지 포함할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고, 임명직의 경우 현직은 참여가 어려우니 ○○○ 위원님 의견처럼 전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 하나 또 조금 애매한 게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전문가 분들과 구분이 조금 애매하다는 측면에서 전문가 쪽으로 옮기는 게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위원	- 공감하고요. 도시계획분야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도 있고 경제분야도 정책 관련해서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 그 다음에 자꾸 전직을 이야기 하시는데 그 이유가 참여시간이나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위원장	- 제가 볼 때는 전직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직에 있을 경우에는 발언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 위원님께서 전직으로 가야된다고 하신 게 아닌가요?
○○○ 위원	- 현직도 가능한데 현직의 경우는 타부서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 위원	- 제가 볼 때는 현직이 여기에 와서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	-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이해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확히 공식적인 언어를 쓸 때는 선출직, 전·현직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전직으로만 가는 건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 위원	- 현실 가능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전직으로 가게 됐는데요. 당사자로 본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을 집어넣은 거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 굳이 현직을 이야기하자면 이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도시계획 업무를 보시는 현직 공무원분들보다는 해당부지 근처에 소재하고 있는 동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정도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 위원	- 저는 정말 누가 자원해서 정말 해보고 싶다는 현직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큰 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굳이 표현에서 조차 가로막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위원	- 저는 여기에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나리오워크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저 사람들이 와서 정책파트에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계획이 정해지면 전주시 전체로 봤을 때 그래도 어떤 문제점이나 장·단점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시 행정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봤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전직 부시장님이라던가 기획관, 이런 얘기를 ○○○ 위원님이 해주신 것 아닌가, 도시계획 전문가보다는 이 계획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해줄 수 있는... - 저는 선출직, 임명직이라고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전직 부시장님이나 기획관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 위원님의 개인적 의견이시긴 합니다만 공모라고 하는

	것을 넣자라고 주장하셔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 위원	-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섭외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포커스에는 전, 현직 부시장, 기획실장은 아닌 거 같은데요.
○○○ 위원	- 저는 너무 ‘정책’ 분야에서 도시계획 쪽으로 일관되는 것은 조금 문제인 거 같고요. 저분들은 기술전문가 그룹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한 두분은 계셔야 할 거 같고 - 그다음에 행정을 하신 분들 중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까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회, 문화나 그 지역에 미치는 전반적인 감을 가지신 분이 들어오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 그래서 도시계획 비율을 좀 줄이고 일반 행정에 경험이 있으시거나 도의 정책 입안을 해보셨고 집행을 해보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분야, 기획분야, 기술분야, 그 다음에 도시계획분야, 도시관리분야 이런 쪽에 한 4개 분야 정도면 대개 어울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정책’ 분야에서 행정, 기획, 도시계획, 의회로 구성을 하면 한 7~8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 저는 처음에 정책입안결정 그룹으로 개념을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과 의회 이렇게 바라보고 이 용어를 쓰면서 행정과 의회 쪽으로 잡았었는데,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확장으로 보면요 그냥 행정, 의회 예를 들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하듯이 각 분야의 정책 입안 그룹으로서 도시정책에서 경제정책도 있고 문화정책도 있고 예를 들면 한옥마을과 대한방직 그러면 문화적 컨셉이 들어가야되서, 정책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주는 느낌이 행정과 의회뿐만 아니라 전체 도시계획 분야를 제외한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봐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	- 정책 쪽에다가 아래에다 하이픈을 하고 행정, 의회 이렇게 우선 써놓아 보죠
○○○ 위원	-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출직 임명직이라는 얘기가 저는 그렇게 범위를 좁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각종 위원회 위원분들은 전문가 그룹으로 빠지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 위원	- 그러면 문화예술이라던지 경제라던지 그런 분들이 들어가 주셔야 될 거 같아요
○○○ 위원	- 그렇죠. 행정이나 의회, 의회는 사실 추천을 받으면 가능할 것이고요. 행정에서도 전직은 제안하고 현직은 공모하고 이런 방식을 통하면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의원님들을 왜 넣었냐면 ‘도시’라고 넣고 그 안에 보완하는 개념으로 늘리자고 했던 거고. 저는 당연히 사회, 문화, 경제 이 부분들은 다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과 의회만을 머릿속으로 구상하다 보니까 인력풀이라던가 이렇게 적어서,,, 사실 공무원분들이

○○○ 위원	어쨌든 지역의 전문가분들을 위촉하거나 아니면 위원으로 모셔서 이 분들이 큰 틀에서 방향을 정하잖아요. 그럼 행정에서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어떤 계획이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님들 정도나 위원장 정도를 넣었으면 좋겠다. 아까 말한대로 문화관광이 전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으니 문화관광과 관련한 행정의 공무원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문화관광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해주셨던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전문가가 여기에 배치해도 되겠다. 그런 의미로 저는 ‘정책’이라고 해본 겁니다.
○○○ 위원	- 시정연구원의 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긴 하겠죠
○○○ 위원	- 거기는 연령대로 구분해서
위원장	-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획’이라고 분야를 넣어 봐도 될 거 같은데요
○○○ 위원	- 각각의 집단들의 정체성이 유사할수록 사실은 합의된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체성을 줄여서 보려고 했던 것이고, 물론 인력풀은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긴 했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행정’도 여러 분야가 있고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의 범위를 일단 공무원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주로 공무원과 의회로 한다 이 정도로 한번 축약을 시켜보죠.
○○○ 위원	- 근데 저는 전북도에서도 한 두분은 모시는 게 어떤지요
위원장	- 현직은 향후 기본계획 변경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전직은 한분 정도 모실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 그러면 ‘도시관리’ 분야를 한번 보죠
○○○ 위원	- ‘도시관리’를 ‘도시계획·관리’로 바꾸는 건 어때요?
위원장	- 일단 ‘도시관리’ 분야를 나눠보면요. 도시계획, 도시개발, 교통, 경관, 환경 이쪽 전문가로 간다고 하면 충분히 될 거 같은데요
○○○ 위원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 자체가 워낙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시계획 전문가, 도시관리 전문가도 있지만 분야별 전문가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6명 혹은 8명 사이에 다 포괄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보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도시분야들이 전문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을 두 집단으로 쪼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그룹별 숫자는 지켜주되, 전문성이라는 분야가 워낙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 집단을 두 집단으로 쪼개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만약에 전문가 집단을 구체적으로 나눈다고 보면, ‘도시관리’를

	도시계획과 도시관리로 쪼개도 좋습니다.
○○○ 위원	- 총괄 전문가하고 분야별 전문가들로 묶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보통 시나리오워크숍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4개 그룹으로 했던데요. 그룹을 5개로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위원	- 예를 들면 그룹핑을 하는 거는 전주에 관련된 사람들을 전체를 대표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입’ 관련해서는 5개 그룹으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은 ‘도시관리’ 분야는 나중에 쪼갤 수도 있다 - 다만 ‘정책’ 쪽에 하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시정연구소도 있고 정책연구원도 있고, 그래서 정책 쪽에 전주시 관련 연구를 ‘정책’ 쪽에 넣느냐, ‘도시관리’ 쪽에 넣느냐 어떤 게 좋을 거 같습니까?
○○○ 위원	- ‘도시관리’ 분야를 쪼개냐 안쪼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위원장	- 그러면 우선 ‘의회’ 아래에다가 참고 표시를 하고 ‘전주시 연구원’이라고 해놓는 것으로 해서 ‘도시관리’ 분야를 이 정도로 정리를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 그 다음 세 번째 ‘사회경제’는 어떻습니까?
○○○ 위원	- 한 가지만 더요. ‘도시관리’ 쪽에서 아까 ‘행정’에 물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문화관광 이 분야도 하나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 네 좋습니다. - 그러면 세 번째 ‘사회경제’는 하위분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지난번에 ‘소상공인’도 나왔는데 ‘소상공인’을 굵은 글씨로 해주시고요. ‘상공회의소’도 나왔고요.
○○○ 위원	- 이 부분은 전주시 관련 부서에 관련단체들 목록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소상공인’, ‘유통상인’ 아니면 ‘전통시장 보호 대책 위’ 이런 단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 위원	- 지금 ‘소상공인’에서 ‘공’자가 공인이거든요. 공인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별로 없고요. ‘소상인’으로 하시면 될 거 같아요.
○○○ 위원	- ‘사회경제’ 영역의 폭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문화관광’도 ‘사회경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한 개념을 같이 봐야 될 거 같아요.
○○○ 위원	- 물론 범위를 넓히자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런데 전 일단 지금 이 안들이 나왔을 때 경제적으로 직간접 영향을 나름대로 크게 느끼는, 측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개량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관계된 사람들, 관계집단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소상공인’들은 매출과 여러가지로 관계가 있고 자광 제안내용과 관련해서 토지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부담 정도가 결정되니까 전

	문가로서 감정평가사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 위원	- 또 하나 이제 이 안들이 나오게 되면 경제적인 여러가지 비용, 초과 이런 것들을 개량하고 측정하고 또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해야되서 회계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일단은 '경제' 쪽에서는 감정평가사와 회계사를 제안합니다.
○○○ 위원	-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 개발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범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얘기할 수 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3번을 '사회경제'라고 써놨지만 사실 사업자들인거죠. 큰 사업자든 작은 사업자든 사업자들인데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의해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크게 영향을 받는 사업자들로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 방금 말씀하신 회계사,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은 전문가 그룹으로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 그래서 아까 전문가 그룹이 단일그룹으로 묶이기 어려우니 쪼개자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 네, 얘기를 하다보면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 위원	- 개념을 '사회경제' 그러면 포괄적이거든요. '지역경제'로 하면 지역경제 이해 관련자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서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지난번에 '지역경제'라고 했었어요.
○○○ 위원	- 아주 딱 정해놓고 하기는 어렵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위분류로 넣고 왔다갔다 논의를 하다 그룹핑이 되면 그룹핑의 성격을 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룹명을 지어도 되거든요.
위원장	- 지난번에 '지역경제' 이런 쪽으로 갔었습니다.
○○○ 위원	- 전주 상공회의소도 하나 넣어야 될 거 같은데요?
○○○ 위원	- 상공회의소와 관련해서 소상공인쪽도 있지만은 대규모 점포 쪽에서도 한사람 들어가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 위원	- 대규모 점포와 관계있는 사람으로 예를 들면 경쟁사로 신세계나, NC, 현대 이쪽으로 하면 자광이 바짝 긴장할 겁니다. 들어와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 위원	- 지역에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야기 하는 건 좀 아닌 거 같고요. 차라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쪽에서 와야 맞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아마 상대방 회사에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쟁회사에서 교섭을 하면 잘하면 모실 수 있지 않을까?
○○○ 위원	- 그쪽보다는 우리 교수님 같은 후배님들이나 아니면 제자 중에서 하실 분이 오셔서 해야되지 어떤 업체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말

	이 나올 거 같습니다. - 좀 전에 말한대로 대형유통 전문가가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예를 들어서 신세계나 현대 쪽에서 와서,,,
○○○ 위원	- 역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신세계나 현대나 이분들이 시나리오워크숍에 들어오게 되면 자광측에서도 시나리오워크숍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 오히려 전문가로서 의견을 듣거나 질문에 답하는 역할이 더 낫지, 특정업체의 자격으로 워크숍에 들어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도 그림은 좋지만 모양으로 봤을 때는 아닌 거 같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아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광이야기를 들었으니 반대측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할 때 시나리오워크숍에는 참여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경쟁사 의견도 들어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 저도 그 부분은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	- 그러면 나중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프로젝트파이낸싱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식을 축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 또 하나는 적나라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되는 부분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의 진출문제에 관해서, 복합쇼핑몰을 그 쪽에 구축하는 거거든요. 이걸 구축한다고 하면 기획이나 이런 걸 대개 대규모 점포의 기획실에서 해요.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면 그 쪽에 어떤 복합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고 나중에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도 쉽고 - 그리고 솔직히 대규모 점포와 관련해서 도내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은 없을 거 같긴 한데요.
○○○ 위원	- 이걸 현장에 계신 분이 더 맞을 거 같긴 해요.
○○○ 위원	- 그래서 대규모 점포는 이사급에서 다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본부에 이사급 정도 되시는 분을 한 분 모셔가 지고 같이 물어보고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위원장	- 지금 ○○○ 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저희들이 여러 지식을 넓히고 여러 의견을 들으면 좋으니 나중에 그분들을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 다만 대규모 점포의 직접적인 당사자의 얘기도 들어야 하니깐 대규모 점포를 넣도록 하죠. - 또 의견 있습니까?
○○○ 위원	- 약간 개념이 섞이는데요. 저는 시나리오가 지식이 없어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문가 그룹도 역할이 있긴 하지만 전문가들의 필요한 역할은 나중에 자문 내지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로 충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저런 분들이 다 시나

	리오워크숍에 들어와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	- 저는 소상공인, 부동산개발 이렇게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역경제’ 영역을 지금은 저분들이 꼭 이해당사자는 아니거든요. 직접적 당사자는 소상공인하고 상공회의소? 지금 사업시설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라든지, 지역경제 그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간접적 관계자가...
○○○ 위원	-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파생할 수 있는 이익이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정확히 몇이라고 하면 - 첫 번째로 상인그룹, 상인그룹에 대형마트라고 하는 재벌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인그룹은 있는 거고요. - 두 번째는 건설업자거든요. 건설경기는요 예를 들면 저기에 아파트를 짓고 하게 되면 석산 돌아가죠, 레미콘 공장 돌아가죠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협회 이해관계자가 있을 거 같고요. - 그 다음에 아까 사회적경제, 여기서도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한테 점포 만들어 드린다고 하잖아요. - 그 다음에 어찌보면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 강구하고 있으니까 한옥마을에 상점이든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이해관계자라고 봐요.
위원장	- 그러면 ‘지역경제’ 하위분류로 건설업을 넣어도 되겠습니까?
○○○ 위원	- 건설업이나 레미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공회의소에서 대변을 합니다.
○○○ 위원	- 저는 상공회의소하고 그때 얘기했던 전라북도 건설협회나 건축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를 넣을 건지 아니면 건설협회나 건축협회 정도가 제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 위원	- 관련성을 확장시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경제적 영향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건설업자는 그걸 지으면 끝나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봐야될 필요가 있고, 대규모 점포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의견을 듣고 그분들을 참조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네. 대규모 점포는 빼고 우리가 공론화위원회에서 듣는 것으로 같음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부동산 개발과 공인회계사는 일단 ‘지역경제’ 쪽에는 넣지 않고 저희들이 나중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소상공인을 대한방직 부지 근처에 있는 상인하고, 한옥마을에 있는 이런 분들을 포괄해서 한 분이 아니라 몇 분을 뽑는게 어떨런지,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 위원	-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주로 패션상품이라고 해서 브랜드 매장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식료품 매장이

	라고 하면 슈퍼라던지 이런 데에서 판매하고 하는 것들은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 위원	- 관광업계도 들어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역 관광업계도 가능할 거 같은데
위원장	- 관광업 어떻습니까?
○○○ 위원	- 여기에는 전주대 관광학과 교수님들이 사실 여러 번 토론토 하고 그래서 전문가 그룹에 문화관광을 넣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지역경제’에서 대규모 점포는 자문으로 하고, 소상공인, 부동산개발, 상공회의소 정도로 하면 어떻습니까?
○○○ 위원	- 저는 이해당사자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한국은행 전 북본부라던가, 여기서도 지역경제를 계속 모니터링 하거든요? - 그래서 국가기관? 객관적인 시각이 있는 경제관련 단체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그분들도 전문가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장사 혹은 개인사업하고 계신 분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와가지고는 서로 대화가 될 수 없거든요.
○○○ 위원	- 저는 ‘지역경제’에 소상공인측에서 여럿이 나올 수 있지만, 지역경제 영향을 받는 분이 더 없을까요?
위원장	- 예를 들면 소상공인에서 3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 위원	-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건설협회, 건축사 협회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많이 관련이 돼있잖아요, 그분들도 넣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 ○○○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 예를 들면 건설업이 들어오면 완전히 그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 쪽에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 그러면 아까 ‘사회적경제’를 넣기로 했죠? 결국 그분들도 소상공인일 수 있는데
○○○ 위원	- 소상공인들은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집단들이고 사회적경제는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아요.
○○○ 위원	- 소상공인의 형태는 사회적기업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는 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거겠죠.
○○○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경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이해력도 있고 영향력까지 말할 전문가로서 이분들을 분류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 여기에는 아까 말한대로 영향을 미치는 이해당사자 내지는 그 부분들을 핵심으로 한다고 하면 전문가 그룹에 넣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전문가 그룹에 일단 참고로 넣어놓고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

	했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룹이 더 없을까요? 우선 소상인에 들어갈 것은 정리해보죠. 소상인 안에 한옥마을, 패션상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식료품?
○○○ 위원	- 식료품을 대표할 수 있는 데에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슈퍼정도 들어가봤자 동네 식료품 공급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영향은 안미칠거라 보이고...
위원장	- 일단 '지역경제'는 소상공인 한 네 분, 부동산개발 한 두 분, 상공회의소 한 분 정도 하면 7명, 8명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룹을 더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저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부동산 개발이라는 명칭은 너무 특정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대한방직 부지개발로 다른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어서, 그런 영향을 받는 분들을 부동산 개발 참여자에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이 정도로 하고, 시민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시민이라는 부분을 간사님은 어떻게 정의 내리셨습니까?
○○○ 위원	- 시민 참여자를 자발적으로 선정하는 것보다 추천과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어떤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받을 것인가가 하나의 문제이고, 인근 지역주민들과 단체추천한 분들 그리고 일반시민들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가 어렵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하여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일단 인근 지역주민은 들어갑니다.
○○○ 위원	- 인근 지역주민이 아닌 주민도 들어가야죠?
위원장	- 예, 들어가야 합니다.
○○○ 위원	- 인근은 가까운, 주변은 포괄적으로 넓게 보면 전주시민 정도까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아 들어오는 것도 시민들 대표하는 게 아닐까요?
위원장	- 그러면 시민단체도 들어갑니다.
○○○ 위원	- 문구 수정인데요. 인근이라는 말에 지역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 그럼 인근 주민이라는 말로 변경하겠습니다.
○○○ 위원	- 지역적 분포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 다 모아놓고 구(區)별로 균형을 맞추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시민을 청년, 여성, 노인 등의 구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 일단 참고 표시를 해보죠. 청년, 여성으로 참고 표시하고요.

	- 주민(인근, 주변)으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이걸 어떻게습니까? 결국은 이 분야는 추천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시민단체는 일정 부분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니까, 추천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일반시민들의 권리를 대표하시는 게 통장이잖아요? - 그럼 전주시에 통장협의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통장협의회에서 추천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습니까?
전주시 관계자	- 주민자치협의회도 있습니다.
위원장	- 그럼 주민자치협의회도 있고, 통장협의회도 있습니다.
○○○ 위원	- 통장협의회는 시와 연관성이 있으니까, 순수한 시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 그럼, 통장협의회는 제외하겠습니다.
○○○ 위원	- 주민1, 주민2 이렇게 되는 거고, 시민단체 추천 1 내지 2, 주민자치 협회 추천 1 내지 2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 각각 1로 할 것인가, 2로 할 것인가 그리고 청년, 여성까지 하면 벌써 6명이 되거든요.
위원장	- 다만 시민단체와 주민자치협의회는 추천받는 거고, 주민은 공모를 통해 뽑는 겁니까?
○○○ 위원	- 주민은 호반, 아이파크, 우미린 이 3개 아파트 단지 임대위 회장들이 논의하여 추천을 받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그렇게 하면 갈등을 더 부추길 거 같습니다.
○○○ 위원	- 누구를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위원	- 주민은 임대위를 통한 추천보다는 공모를 통해 무작위로 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주민은 공모를 통한 추첨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 그러면 배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근 2, 주변 2 이렇게 해서 인원 절반은 주민들로 하여 공모를 하고, 나머지는 시민자치 추천 1, 주민자치 추천 1, 청년 1, 여성 1 하면 8명으로 구성됩니다. - 그런데 청년, 여성은 공모로 갈 것인가가 고민됩니다.
○○○ 위원	- 여성은 주민 중에 2인을 여성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인근 2에 여성 한분, 주변 2에 여성 한분으로 하면 되겠네요. - 청년은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좀 전에 청년과 미래세대가 같이 나와서 미래세대를 삭제했는데, 어감상으로는 청년보다 미래세대가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청년을 미래세대로 바꾸겠습니다. - 그리고 여성은 말씀하신 데로 인근, 주변 주민 중, 한 명씩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미래세대는 별도로 두 분 정도 뽑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이런 경우, 미래세대는 보통 고등학생, 대학생 정도거든요. - 이 참여자 안에 직접 넣는 방법도 있고요, 별도로 미래세대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제 개인적으로는 별도의 그룹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봅니다. - 시민 참여자에 포함할 경우, 미래세대들의 발언 기회가 적어지지 않을까 걱정되긴 합니다.
○○○ 위원	- 그럴 위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면 미래세대의 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워크숍 참여 비중은 너무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 미래세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의미에서라도 미래세대는 별도로 그룹화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 미래세대에게 시나리오 워크숍을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 대신 자발적으로 50~100명 정도 모아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별도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시나리오 워크숍을 하기 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미래세대의 의견들을 모아 참여단분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저도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 위원	- 좋은데, 별도 예산입니까?
○○○ 위원	-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토론회 등으로 해서 자원봉사시간을 주는 방법도 있고, 기념품을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일단 미래세대를 시민참여단 속에 넣느냐? 아니면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세대의 의견을 듣느냐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 저는 미래세대가 시민참여단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 대학생이나 30대 초반도 미래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별도로 특정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번거롭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시민참여단 속에 한, 두 명이라도 미래세대 인원을 더 늘려 미래세대의 원활한 의사 발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 미래세대의 숫자가 3~4명 정도 되면 인원이 너무 많아지고, 만약 넣는다면 규모상 2명 정도밖에 넣을 수 없다고 봅니다.

○○○ 위원	- 경험상, 현실상 섞어 놓고 봤을 때 미래세대는 발언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위원	- FT가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는데요. - 물론 논쟁이 되면 문제니까, 논쟁을 자르는 게 또 FT의 역할이기 때문에 시민참여단 속에 포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제는 전주에서 미래세대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한 번 별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 위원	- 저도 별도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 아이들끼리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토론도 잘하거든요. - 그냥 시민참여단 속에 미래세대를 넣어 토론했을 경우, 논의에 참여하거나 발언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 만약 별도 프로그램을 할 경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위원	- 인원 한 50명 정도로 한 3백만 원 정도 들어갈 거 같습니다.
○○○ 위원	- 인원은 더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우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미래세대를 별도의 시나리오 그룹으로 만든다면, 각각의 그룹들을 섞는 것까지 고려할 때, 1차 시나리오 워크숍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봐야 할 것이고, 모집단이 현재 코로나 19사태 등으로 볼 때 50명 정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공모 내지는 추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10명 이내 정도 수준으로 1차 시나리오 워크숍 프로그램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근데 섞어서 2차 3차까지 과연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위원장	- 미래세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느냐, 아니면 시민참여단 속에 포함해 이야기할 것이냐가 결정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 위원	- 별도로 하되, 인원을 크게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데, 1차 시나리오 워크숍 수준 정도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 그럼 홍위원님, 별도 시나리오를 해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 그러면 4번 다음에 5번으로 미래세대를 넣고, 워크숍을 1차만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 그렇게 하면 전문가그룹까지 나누면 6개 그룹이 되는 것이지요.
○○○ 위원	- 시나리오 워크숍이 1차만 하고 안 하기는 애매 하거든요. - 그래서 워크숍이 아니라 미래세대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별도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일단 별도 프로그램으로 해보는 것으로 저희가 감사하시고 또 시 행정하고 논의해 보고 불가능하다면 시민 속에 미래세대를 넣을 수밖에 없고요.

	- 만약에 전반적인 흐름에서 가능하다면 별도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는 것으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 다시 도시관리 전문가 쪽으로 가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적 관리라고 하고, 앞의 공인회계 이런 것은 관리로 집어 넣어도 되고, 그래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도시관리라고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나누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위원장	- 네, 전체적으로 7명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 위원	- 7명 정도 늘어나면 용역사항에 변동이 없습니까? - 만약 한 집단 더 늘어나게 되면 수당이 좀 변화가 있겠네요. - 그 수당은 용역회사에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지급하나요?
전주시 관계자	- 일단은 시에서 지급합니다.
위원장	- ○○○ 위원님, 예산에 대해선 크게 부담이 있을까요?
○○○ 위원	- 그렇게 큰 부담이 있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 인원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 도시계획 및 관리를 일단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 나중에 1차에서 그룹별로 하고 2차에서 주제별로 나누면 주제가 그룹별로 5개가 나오는 건가요?
○○○ 위원	-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요. - 나중에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만, - 표준안으로는 그룹별로 정체성에 맞게 안을 하나 내고, 그 안에 교통분야, 도로 분야 등으로 나뉘면 각각의 집단에서 교통 관련된 사람들, 도로에 관련된 사람들 등이 모여서 실행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오히려 지난번 교육부에서 했던 방식은 각각의 집단들이 자기 안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 토론을 통해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묶어서 안을 좀 더 구체화 시키면 의제가 4~5개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이었죠. - 우리도 어떤 방식을 취할지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일단 도시계획(위), 도시관리(아래)로 나누고 도시계획과 도시관리 부분에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인회계, 감정평가는 위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 분야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 문화관광을 내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 그러면 문화관광을 아래쪽으로 내리겠습니다. - 그리고 사회적경제는 어느 쪽에 포함시킬까요?

○○○ 위원	- 사회적 경제도 밑으로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좀 전에 말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기업의 형태를 여기서는 더 많이 봐야 하고, 이런 걸 할 때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시관리로 들어가야 할 거 같기도 합니다. - 일단 넣어놓고 나중에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사회적 경제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 위원	- 사회적기업하시는 분들, 협동조합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전문가로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 위원	- 제가 이해를 좀 해보면, 도시계획은 처음에 도시계획을 추상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건축사라고 할지, 기술사랄지 이런 분들이 추상적인 안을 구체화해 만들어 낸단 말입니다. - 그럼 그것을 감정평가랄지 회계사분들이 여기에서 비용과 편익을 한 번 보는 거죠. - 그리고 다른 문화관광, 사회적 경제에서도 역시 비용편익을 보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지만, 같이 하면서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용편익분석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문제가 있는지 같이 논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운영할 때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판단해서 정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런 측면에서 저기 사회적 경제가 조직은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합인데, 사회적 가치나 미래가치 같은 가치적 측면을 본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 전문가가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쉽게 위에 도시계획은 공대출신 분들, 밑에는 비공대출신 분들 식으로 구분 지으면 어떨까 합니다. - 아무래도 공학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과 공학적 전문성과 거리가 있지만, 경제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 도시계획(공학적 측면)이라고 작성해 주시고, 아래는 비공학적 측면이라고 작성해 주시죠.
○○○ 위원	- 비공학보다는 인문사회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비공학을 인문사회라고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 위원님, 과연 시나리오를 누가 만들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에 시나리오 그룹 모두에게 어떤 안이 나오면 다 서브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 그러니까 기초에서 출발할 때 어떤 그림을 먼저 누가 그리는 가로 해서 그 서브가 약간 붙어 있을 뿐이지 처음에 논의될 때 완벽하게 경제적 검토 등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과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 말씀 잘하셨습니다. - 여기서 시나리오 워크숍으로 팀을 구성해서 넘긴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넘기면 되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그래도 이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안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가능한 안들을 던져주고,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그 안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 그렇지 않고,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안을 만들어 내라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혼란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그래서 여기 이야기도 진행해야 하지만 바로 다음에 결정은 못 하더라도 의제 이야기도 나와야 하는 이유는 서로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를 완벽하게 정하고 난 후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정도 6~7그룹으로 해 놓고 의제를 이야기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 어떻습니까? 오늘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더라도 이 정도로 해 놓고, 또 의제를 논의하다 보면 참여자 구성이 또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주신다면, 의제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 위원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는 제가 보기에 시민참여단 분들 의문사항에 답변하거나, 전문성을 지닌 분들이라 특정 그룹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체 그룹으로 뽑아 놓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전문적으로 조언, 지원해주는 분들이지 그 안에 개별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의 역할을 좁혀 놓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그래서 외부로 빼서 각 그룹들이 중간에 문의하거나 그룹들이 가지고 온 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의견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 네, ○○○ 위원 의견에 따라 여기에서는 빼고 전체 의견에 대해 나중에 답을 해주는 역할로써 자문 성격으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 위원	- 결국은 최선의 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그 안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 기능은 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일단은 두 분은 자문적 역할로 조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위원	- 그렇다면 굳이 전문가 그룹을 둘로 나눌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저 부분은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 저희가 계획과 관리로 나누니까 관리가 축소되는 느낌이 있지만, 나중에 오히려 계획이 너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우리가 나누어 놓으니까 관리가 적어 보이는 건데, 계획을 보면 개발, 교통, 경관,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와 총괄전문가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계획 부분이 더 많아져 보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	-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나눌지 안 나눌지에 대해 좀 더 의제를 논하다 보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 한 말씀 관련해서 드리면, 맨 위에 원래 그룹이 행정, 의회 파트로 해서 모집단을 같은 성격으로 하자고 했는데, 내용을 볼 때 사실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공론그룹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도시관련 하더라도, 그 밑에 분야가 또 겹치거든요. - 아까 도시계획은 공학적 측면이라고 하고, 정책하고 도시관리분야가 1번에 섞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 의회, 민간할 거 없이 도시정책관리 쪽을 한 파트로 가고, 그 중에 어느 파트는 행정과 의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야 자꾸 그룹이 축소되면서 섞이지 않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원래 정책 쪽에 행정파트에서도 문화관광 등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 위원	- 원래 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 그게 공론이냐, 아니면 외부 전문가냐, 이해당사자냐 이 차이만 있는 것이지 분야는 같다고 봅니다.
○○○ 위원	- 그러니까 도시관리를 도시정책으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 그래서 도시정책관리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문화관광이라든지 인문사회적인 도시의 정체성을 좀 고민하시는 이런 분들을 합하자는 것이어서 아까 그 이야기는 한번 토론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 그래서 도시정책관리 분야에 행정, 의회하고 문화관광, 사회적 경제 등과 엮으면 되는 것에 크게 이견은 없을 거 같습니다. - 아까는 행정쪽하고 의회를 좀히자는 의견이 있었고, 좀 넓혀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만 다시 확인해보고 정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 도시정책은 정책적 도시관리가 더 좋습니다. - 그래서 저 아래에 문화관광, 사회경제를 위로 올리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 행정을 좀 세분화하면 어떻습니까? - 시에서는 어떤 분야를 주로 행정으로 포괄시킵니까?
전주시 관계자	- 행정하고 기술분야로 나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고민해야 할 지점이 출발이 중도위 위원, 전북도시계획위원 등 위원회의 민간인, 공무원 위원들을 저기에 넣다 보니까 오히려 정체성이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분들을 밑에 전문가로 빼자는 의미였구요. - 전문가로 빼고 나면 전문가 그룹이 분야는 많은데 1개 그룹으로 묶기에 너무 많으니까 저 그룹을 나누자는 의견이 논의의 출발이었거든요.
○○○ 위원	- 오늘 묶을 것이냐, 말 것이냐만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 위원	- 저는 이 그림이 좋은 게, 너무 테크니컬한 구분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왜냐면 행정 같은 경우도 보면, 도시분야 사람들이 꼭 들어와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 정책 총괄 내지는 거버넌스 또는 정무적 판단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오히려 공무원은 의회가 되었든, 행정직이 되었든 개별사업부서가 아니라 총괄부서가 들어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제 뜻은 행정은 굳이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정하지 말고 행정은 총괄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 행정마저도 세분화해서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 위원	- 그러니까 행정 같은 경우는 전체적 입장에서 여러 부서 이해관계를 조율해본 사람들이 행정에 한 분 정도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 행정을 없애고 기획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 위원	- 행정기획이 하나죠.
○○○ 위원	- 행정 속에 기획이 들어가죠
위원장	- 그러면 행정·기획이라고 하겠습니까.
○○○ 위원	- 일단 5개보다는 4개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그래서 정책하고 관리를 묶는 것에 찬성입니다.
○○○ 위원	- 저기서 행정이라는 것은 일반인이나 언론에서 볼 때는 전주시를 뜻합니다. - 따라서 기획이 붙을 수는 없구요. 전주시 기획이 되는 거니까요. - 그리고 저기서 행정이라는 것은 의회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 기획은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은 필요 없는 말 같습니다. - 행정(전주시 총괄부서)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예를 들면, 기획실 같은 경우가 되겠죠. - 그리고 총괄부서라고 하지 말고 기획부서라고 하죠. -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도시건설위원회)로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 같은 경우는 전주시 연구원 쪽에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그룹으로 넣지 말고 오히려 정책연구원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책 연구원이 주로 어떤 걸 담당합니까?
○○○ 위원	- 문화관광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시건축직도 한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정책연구원 속에서 문화관광 쪽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 위원	- 행정은 의회가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시정연구원들이 와서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 행정은 의회에 들어가고 지역사회, 인문학적,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갈등관리 전반적인 테크니컬하게 깊게 들어가진 않지만, 포괄적으로, 그래서 전주시에 총괄적인 문제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러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룹들이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좀 전에 위원회 중에서도 밑에 하고 겹치지 않는 분야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전주시에 어떤 위원회들이 있죠?
○○○ 위원	- 한 100개 정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 정책연구원들의 연구원들이 들어오면 의원님들 앞에서 이야기 못합니까?
○○○ 위원	- 정책연구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 위원	- 얼마 안 되고, 작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렇게 써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정책연구원들이 들어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획부서의 안 들을 만들고, 이슈를 가리마를 타 주는 것이 정책연구원입니다. - 사실은 기획부서의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게 연구원이기도 하고, 일정 부분 의회도 연구원의 도움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책연구원이 적절하지 않으면 관광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재단이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재단 쪽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 정책연구원하고 문화관광 쪽에 한 전문가를 넣고, ○○○ 위원이 이야기한 전체 사회경제, 갈등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집단이 어디죠? - 지금 갈등조정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있습니까?

전주시	- 시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 위원	- 정책연구원은 전주시와 특수관계자 같은데 들어오게 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각종 위원회 다울마당으로 표현되는 그룹 중에서 풀로 몇 명 정도만 해놓고 나중에 그 안에서 사람과 위원회 활동을 보고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책연구원은 자유롭게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빼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 위원회에서든 아래 전문분야위원회가 아닌 포괄적인 전주시의 위원회로 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 위원	- 위원회, 거버넌스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시민회 등 다양한 그룹에 계신 분들을 회의할 때마다 20~30분 정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위원장	- 위원회가 자광의 의견을 들었으니, 그 반대되는 의견이라든지, 또 필요한 의견들을 위원회에서 청취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 네.
위원장	- 다양한 의견을 위원회에서 들도록 한다는 것을 제5차 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회의록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저는 동의합니다.
○○○ 위원	- 저는 일부 문구 수정된 것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 위원 외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 다음 공론화위원회는 7.16(목) 오후 3시로 결정하겠습니다. - 그때는 의제와 그리고 차기에 어떤 분을 모시고 의견을 들을 건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은 기획부서, 의회, 위원회는 포괄적으로 전주시 위원회 민간 위원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방향을 정하는 거니까 갈등 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 행정, 의정, 민간 거버넌스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거버넌스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도 있고요, 굉장히 단체가 많습니다. - 그 다음에 필요하면 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 위원	- 그렇게 표현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제가 보기에 (민간위원+α)인데요. - 컨셉은 행정, 의회, 민간거버넌스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전주시 거버넌스 조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그러면 나머지는 구체적인 사람, 위원회 문제는 별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이 정도로 나누고, 이 기준에 맞추어 이름을 나열해 봐야 합니다.
위원장	- 민간위원은 빼고, 전주시 거버넌스 조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인원은 각각 8명씩으로 하는 건가요? - 6~8명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방식의 문제인데, 동 수로 섞느냐, 아니면 그렇지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위원	- 각자 네 집단이 모여서 자기들이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다른 안을 만들면 교과서적인 방법 말고 실질적으로 8개 안이 나왔다 하면 다음에 그룹핑 상관없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묶는거죠.
○○○ 위원	- 저번에 ○○○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동 수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 위원	- 초기 그룹핑으로 동 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 위원	- 그러면 나중에 2차는 동 수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말이죠?
○○○ 위원	- 네,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명히 한 명이 혼자서 개별 안으로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5명이 하나의 안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위원장	- 그리고 공인회계, 감정평가 등은 전체 자문으로 들어갑니다. - 도시계획, 도시개발, 교통, 경관, 조경 등에서 조경은 빼면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에 소상공인, 한옥마을은 소상공인 가로 안에 포함해 주시죠. - 그 다음 부동산개발, 상공회의소 정도로 분류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별도로 칸을 하나 만들어서 미래세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검토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간사님하고 상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3번 한번 보여주세요. - 저는 여전히 지역경제 부분에서 부동산개발이 지역경제에 중요한 대표나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해야 할 이해관계 그룹이냐고 했을 때, 부동산개발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 위원	- 부동산개발도 사실 전문가처럼 자문 기능이거든요. - 부동산개발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업에서 어떠한 문제가 파생되고 무엇이 있더라는 의견을 듣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하여 안을 만들어 내는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 그래서 지역경제에서는 부동산개발이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우리가 이해관계자를 뽑는다고 보면, 제일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은 부동산을 하는 분들이기는 합니다.

	- 결국은 상업의 영향, 아파트 가격 하락이거든요. - 이 부분을 대표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을 건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 그 다음에 부동산개발도 꼭 필요하면 전문가 영역으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어쨌든 이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하는 사람이 상인밖에 없는가, 아니면 건설업체라든지 상공회의소 말고는 없는지 그 부분만 확인되면 두 부분으로만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소상공인과 상공회의소만 가지고도 지역경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 수 있다면 두 부분으로만 나누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첫 번째 용어의 문제고요. -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 누가 이해관계든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가 복잡하고,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그룹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인데, 지역경제 하부로서 부동산개발을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지역경제 분야를 앞으로 어떤 그룹을 더 넣을 것인가를 보완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세부적으로 개념 생각하지 않으면 건설도 들어가고, 산업별로도 들어 가야 합니다.
○○○ 위원	- 그럼 상공회의소 안에 그런 내용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상공회의소 안에 건설, 부동산 등이 모두 들어갑니까?
○○○ 위원	- 아마도 부동산은 회원이 안 될 겁니다.
○○○ 위원	- 부동산은 규모가 안 되고, 건설업은 회원 업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 상공회의소를 상공계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 상공회의소는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 그래서 상공회의소와 상공계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 일단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 정도로 초기 안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위원장님, 1항에 도시건설위원회로 특정하지 마시고 전주시의회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냥 의회로 바꾸겠습니다. -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초기 안이기 때문에 지난번 3, 4차 회의 끝나고 언론에 문서로써 요약보다는 직접 설명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 이번 건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요약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 위원님 언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위원	-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로, 브리핑은 매번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기자들과 면대면을 계속해야 오해가 안 생기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거든요. - 그때 원칙은 오전에 하면 오후에 브리핑하고, 전날 오후에 했으면 다음 날 아침에 하기로 했는데, 그게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하셨잖아요. - 그렇게 하면 기자들과 점점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 시간은 오후 2시 정도가 적당하고요, 아침은 오전 10시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 그럼 직접 브리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 위원님 오늘 오후 2시에 가능할까요?
○○○ 위원	- 네, 가능하고요. - 오늘 말씀하실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자광의 사업설명을 들었으니 이에 반대의견이나 이견이 있는 단체의 설명을 들겠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오히려 반대의견이라기보다는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들어보기로 했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모색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 자광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도 받아보겠다는 내용만 말하기보다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예를 들면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 것 같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폭넓게 위원회에서 듣기로 했다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제가 오늘은 일정이 안 되고, 위원장님이 대신 브리핑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 그럼 제가 2시 반에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반대 의견 포함한 여러의견을 듣기로 했다, 다음에 이런 의안이 되게 준비 논의했다, 다음 회의에는 의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했다, 제6차는 언제 열릴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오늘 기자 브리핑을 할 경우, 위원장님이 프레임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요?
○○○ 위원	- 자광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광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 그러니 언제든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자료나 모든 것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충분히 제공하여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거꾸로 돌려 주셔야 됩니다.

	- 그 다음에 KBS보도 태도나 내용을 보면 공론화위원회 구성 취지 등을 왜곡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예를 들면 문구적으로 공론이라는 것은 시민에게 물어보고 시민에게서 답을 찾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야 하고, 그걸 듣는 것이 공론화위원회라는 역프레임으로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	- 너무나 언론을 의식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 나중에 공론화까지 가다 보면 단어가 헛갈릴 수가 있어서, 정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 그러니까 공론화에 의제가 있는 거고요. - 시나리오에서 나온 안이 의제가 되는 겁니다. - 시나리오 워크숍 의제라고 말했던 것은 시나리오에서 어디까지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범위입니다. - 논의 범위를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다음에 워크숍 참여자들이 논의 범위 안에서 시나리오를 4개 정도 만들면 이 4개의 시나리오가 공론화의 의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 논의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겠네요. - 그러면 제5차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칩니다.